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말씀: 베드로후서 3:1-18

요절: 베드로후서 3: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후서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베드로전후서의 종합이 되고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2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의 재림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2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의 재림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본문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Dear Friends)’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반복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고 거룩과 경건으로 옷입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의 날이 올 것을 바라보고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나 이제는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의 마음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재림의 확실성(1-10)

먼저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듯이 분명한 의식을 갖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인류종말에 대해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이사야 66:15-17, 다니엘 12장, 말라기 4:1 등) 예수님도 마가복음 13장 종말장에서 분명히 인류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막13:24-26)”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

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들은 주의 강림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 이래로 세상은 지금까지 잘만 돌아가는데 무슨 심판이 있는가?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그대로 존재합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빠른 시일내에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구가 치료 불가능하게 된다고 미래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에너지 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물 부족 현상과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위험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세계 각곳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 안전지대라고 했던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이쪽 광주는 그래도 조용했지만 경주, 울산지역은 난리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소방서 직원들은 퇴근도 못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종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처럼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죄를 즐기며 살기 위해서는 재림과 심판이 없어야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데 심판이 있다고 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이 있든 없든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5b절에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일부러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자 애를 썼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불편한 진실은 회피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격언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상가집을 찾아 지혜를 구하나 우둔한 사람은 잔치하는 곳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하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아~ 인생은 살만한거야’ 술마시며 즐기는데 시간을 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상가집을 찾아다니며 우리 인생의 결국이 어떠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 세상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므로 빛을 창조하셨고,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므로 땅이 드러나고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을 사람들은 일부러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창조의 진리, 재림과 심판의 진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옛날 일 알아봐야 뭐하나?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나중에 종말이 있든 없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현재가 중요할 뿐이야, 현재를 즐기고 지금 잘 먹고 잘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인생을 즐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계시록 22: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시대에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심판이 있어” 소돔고모라 심판 때도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최악이 관영한 소돔고모라를 분명히 유황불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롱했어도 심판은 왔습니다. 유황불에 다 타 죽고 만 것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창

7:22)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엮어 멸하셨더라(창19:24,25)” 사람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죽음이 오듯이 사람이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류의 종말도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 합니다. ‘그러면 왜 주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오 마 예수님이 약속 하셨는데 승천하신 지 이미 3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때는 예수님이 승 천하신 뒤 30년 후였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왜 오지 않으시는가?’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낮췄?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 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것은 아예 허왕된 말은 아니었는가? 이렇게 반문을 제 기합니다. 여기에 대해 8,9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왜 오지 않으시는가? 주님은 너무 시간관념이 없으시고 약속을 잘 안지키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는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개념과 사람의 시간개념이 다를 뿐입니다. 주 께서는 천년이 하루같다고 하셨으니 지금은 이틀밖에 지난것이 아닌것입니다.

하나님은 맘만 먹으시면 당장에라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할 수 있는대로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 니다. 그래서 심판을 늦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심판 때도 단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으셨지만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120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120년의 유예기간을 두셨습니다. 방주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한사람이라도 심판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120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 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런데도 주의 재림을 부 인하고 조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2: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자들은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0절을 봅시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주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 루어집니까?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 독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 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옵니까?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몇날 몇일에 갈테니까 기다리고 계시오~ 카톡 보내는 도둑 봤습니 까?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입 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 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할 것 다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놀 것 다 놀

고, 그리고 나중에 더 이상 놀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십자가 강도처럼 회개할테니까 걱정마라고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러나 자기인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도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지만,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도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만은 자신있다고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말기암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자기는 잘 못한 것 없는데 마주 오는 음주운전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주 앞에 설 때가 옵니다. 10년, 20년 차이가 있을 뿐, 다 그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10월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2차 세계대전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불과 57초 만에 반경 1.6Km이 내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히로시마 주민 25만 5,000명이 일순간에 죽었습니다. 원폭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7만명. 히로시마에서만 총 32만 5천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행복을 안하자 사흘 뒤, 나가사키에도 원자탄이 떨어져서 3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을 터트리기 전에 뼈라를 뿌렸습니다. 앞으로 원폭이 떨어지면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멀리 피하시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다. 이것은 연합군의 심리전이다, 대일제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았습다. 피한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시간이 되었을 때 원폭을 떨어졌고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것을 믿고 다른 도시로 피난 간 사람은 살았습다. 1945년에 떨어진 원폭이 저렇게 무서운 위력을 발휘했는데 지금 북한이 만들고 있는 핵폭탄은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남한이고 북한이고 순식간에 다 잿더미로 변할 수 밖에 없습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한 지역에 던진 핵폭탄도 이 같이 강력하건만 하물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인류의 죄가 목에 까지 찼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수가 없다 하시며 심판의 불을 던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구를 볼 때는 얼마나 커 보입니까? 그러나 우주속에 지구는 점 하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치워버릴려고 하시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려고 하시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무섭고 끔찍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부패가 드러나 탄핵이 인용되었고 그 전에는 그와 관련된 청와대 인사들이 포승줄에 묶여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 보았습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의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처참한 모습들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장차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누구도 엄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II.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11-18)

첫째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12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 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 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즐겨보고 저렇게도 죄를 지어보고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오고 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약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악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holy and godly life. 거룩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삶. 죄를 미워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삶. 영으로써 육을 죽이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엿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골3:1,5).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눅9:23).

11절에 있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말씀은 3절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 말씀과 대조가 됩니다. 주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고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하며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타락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창6:9).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6:22). 의를 전파한 삶을 살았습니다(벧후2:5).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회의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뭐하려고 이걸 하고 있나? 120년동안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대장 살다가 10년 남겨놓고 하면 되지...’ 이런 생각과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방주짓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장차 이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세상이 물로 완전히 뒤덮힐 때 홀로 뚱뚱 떠서, 심판에서 구원해 줄 그날을 소망하면서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묵묵히 거룩과 경건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홍수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곧 그치겠지... 1주일만에 그치겠지... 10일이면 그치겠지.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40일을 주야로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샘이 다 터져서 온 세상이 물천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노아가족들을 조롱 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에 탄 노아와 그 가족만 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평소에는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 홍수가 났을 때는 점점 더 올라가서 제일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노아의 방주가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거룩과 경건으로 사는 삶은 평소에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별로 멋도 없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 사람을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시받고 조롱받고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높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룩과 경건으로 살면서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지 못하고 다 즐기지 못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짓는 즐거움이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 목자님은 양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말씀을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1:1을 4~5시간씩 하기도 합니다. 한 목자님 가정은 동역자와 양들을 섬기는 기쁨이 어찌나 큰지 거의 매주 풍성하고 다양한 먹거리로 섬기십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자 소원하고 은혜롭고 건전한 예배처를 찾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일일카페를 열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은 힘들기는 했지만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신앙에 대해 상담해주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하고 향긋한 커피를 마시면서 정훈형제님의 엑셀런트한 라이브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 이런 기쁨을 어디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디모데 목자님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의 주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거룩한 기쁨과 경건한 삶으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 재림의 때 예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둘째로, 말세의 때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 그 나라는 의가 있는 곳입니다. ‘의가 있는 곳’은 ‘의로 충만한 곳’ ‘의가 완성된 곳’을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의로운 나라였습니다. 죄가 없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동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함으로 의가 사라지고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은 온갖 죄로 말미암아 썩고 부패하고 거짓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탄핵정국의 우리나라를 보면 수 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거짓과 부정부패, 불의한 것들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고나면 최순실 표가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안붙은 데가 없었습니다. 온통 세상이 그 아버지 때 부터 심어놓은 그 죄가 온 대한민국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내가 이런 모습을 불려고 이 나라에 태어났는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실망스럽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갖 죄로 병들어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롬3:10-12). 이는 근본적으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

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해 보고자 해도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의로운 나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내면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져서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 나라가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21:1,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결혼식 날 단장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결혼식장에 갈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신부가 저렇게 아름다웠나?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화장 지우고, 웨딩드레스를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 또 평범해집니다.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멋있고 은혜로운 나라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불 못에 던져져서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계20:10). 마귀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데, 우리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던 마귀 사탄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유혹이 없습니다. 그 때는 아마 회개소감을 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찬송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 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의 날을 사모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17,18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십자가 복음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선생들에게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거짓선생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재림을 부인합니다. 이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복음에서 떨어지도록 조작합니다. 이들의 거짓 교훈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대전신학교 허호익 교수가 쓴 <한국의 이단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 자칭 재림예수는 5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풀어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억지로 자기중심적으로 풀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은혜가 새롭고 더 깊어집니다. 마음에 사무칩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 보다 깊고 저 하늘 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 내면이 더 깊고 성숙해집니다.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열국의 어머니, 천만인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전에는 쉽게 빠지고 상처 받고 토라지던 자가 이제는 한 양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선한 목자로 성장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공부를 많이 하고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을까요? 저는 목자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천박한가? 어린아이 수준밖에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생각하면 할수록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 온유와 사랑, 인내와 희생, 기도와 열정, 지혜와 능력,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악한 영을 대적하는 영적 권세, 사람을 키워내는 비전과 소망. 정말 예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은 당대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였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빌3:8). 그는 예수님을 알되 그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알기 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빌 3:10,11)” 또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기를 소망했습니다(엡3:18,19).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했습니다(엡4:13). 사도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갔기 때문에 작은 예수가 되어 수많은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 사람들은 인류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지식, 인생을 엔조이하는 지식에는 도가 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지식은 죽고 나면 끝이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십니다. 그 날에 이 세상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과 경건으로 주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

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며 투쟁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